

# 병리협보



제407호 <1979년 3월 8일 창간>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www.kamt.or.kr](http://www.kamt.or.kr)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중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4층

발행인 양만길 / 편집인 김상원  
편집위원 홍창식, 김 철, 함경희 / 기자 서윤진  
디자인 케이프로 02)2272-2389 / 인쇄 (주)범아인쇄 02)2266-5666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등록번호 서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웹진 병리협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1

### 제5회 아시아 임상병리사 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 제55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동시 개최

2017년 9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아시아 11개국 임상병리사가 함께하는 제5회 아시아 임상병리사 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제55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종합학술대회도 동시에 개최되어 1일 등록 (4평점)/ 2일 등록 (8평점)이 선택 가능합니다.

## 2

### 전자출결시스템 전면 도입

정확하고 투명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전자출결시스템이 전면 도입됩니다. 협회 앱 내 회원전자카드와 면허번호 입력을 통해 입퇴실 시간과 총 이수시간이 입력되고 명찰이 현장에서 인쇄됩니다.

## 3

### 1년 이상 휴직자 업무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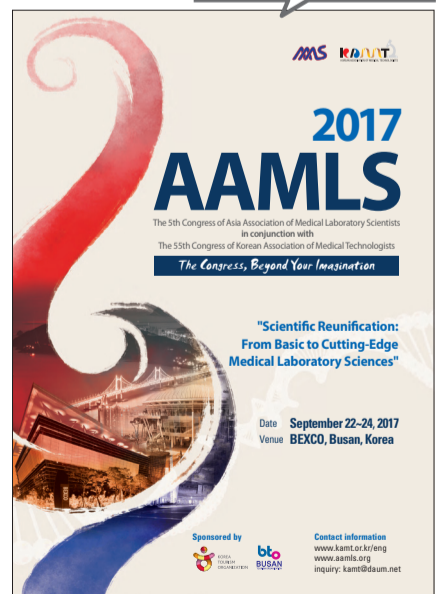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휴직자는 업무 복귀시 현장 적응을 높이기 위해 휴직기간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2년미만)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6시간 이상, (3년 이상) 20시간 이상 - 12월 이후 확정 예정

## 4

### 창립 55주년 기념 협회 역사 전시 조성

협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하여 협회 역사를 정리하고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협회 회관 5층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D-296



#### 제 407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Win-Win 전략의 의료분야 구매대행 CNS헬스케어	Uni-versity를 넘어 New-versity로 신한대학교
--	------------------------	----------------------------------	---------------------------------------

#### 02 Education

2016년도 추계 분과학회 학술대회  
결과보고

#### 05 News

2016 지방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워크숍 강의 지원 등

#### 08 KJCLS

진정한 학술발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 발걸음

#### 09 Special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결과 발표

# 2016년도 추계 분과학회 학술대회 결과보고

## 전자출결 시범운영 실시... 집행부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보수교육 평점 관리를 위한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 시범 운영되었다. 중앙회 및 학회 집행부와 회원들의 이해와 참여 덕분에 전자출결 시범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학회를 거듭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현장등록자도 전자출결 및 명찰과 영수증이 출력 가능하도록 추가적

으로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며 운영진과 참석자의 편의향상을 도모했다. 중앙회 교육부 및 정보통신부는 이번 전자출결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임상면역검사학회



접수처: 사전등록/현장등록



임상면역검사학회(학회장 이정현)는 10월 29일 토요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16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이정현 학회장은 “초창기 면역학 검사에서는 혈청학 검사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Flow Cytometry 등을 이용한 세포학적 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면역학 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직무역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면역검사의 발전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심화 특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면역학회에서는 총 4개의 구연 발표와, 20개의 많은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업무 현장에서 배우고 겪은 사례

를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회원들의 학술적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학회는 동남아, 중남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자카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특강 외에도 행복한 삶과 안티에이징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심신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학회 중간에는 2016년 면역전문임상병리사 수료식이 진행, 자격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강동경희대병원의 김영남 회원이 자격시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학회 측 학술대회 설문조사 결과, 특강 중 ‘면역검사법의 최신 경향과 발전’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 이슈가 된 자카바이러스에 대한 특강도 평소 접하기 힘든 최신의 학술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수상자 명단〉

- |                          |                 |
|--------------------------|-----------------|
| 1. 우수구연상 - 공주연 (삼광의료재단)  |                 |
| 2. 우수포스터상 - 김장섭 (삼성서울병원) | - 김윤경 (씨젠의료재단)  |
|                          | - 신의철 (녹십자의료재단) |
|                          | - 최진호 (녹십자의료재단) |

## 임상핵의학검사학회



임상핵의학검사학회(학회장 김동민)는 10월 29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2016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55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와 동시에 개최된 임상핵의학검사학회 추계 학술대회는 오전 이른 시간, 방사선안전관리 심포지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서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된 학회(임상분과)에는 회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정승희 회원의 「Thyroglobulin검사의 반응조건에 따른 결과 비교 분석」, 서울대병원 임소희 회원의 「RIA에서의 AMR(측정가능범위)와 CRR(임상보고 가능범위) 적용의 이해」, 서울아산병원 박지혜 회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핵의학 혈액검사의 문제점 개선 방안」, 삼성서울병원 정홍수 회원의 「Westgard Multi-Rules의 효율적 적용과 조치사항 개선」, 녹십자의료재단 강소비 회원의 「Free cortisol 방부제 유무에 따른 비교실험」 구연발표가 진행되었다. 폐회식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소희 회원에게 우수구연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지난 9월 김동민 학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 “핵의학검사는 KOLAS 국제인증기관(ISO 15189)확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맞춤형 의료, 예방의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회원들과 협회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힌바 있다.

## 임상화학검사학회



임상화학검사학회(학회장 정현근)는 11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2016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현근 학회장은 전 협회장이자 임상화학검사학회 고문이었던故 이주섭 자문위원의 별세소식을 전하며, 국내 진단검사의학 분야 학술 및 임상병리사의 업권 발전을 위해 일조해온 자문위원의 발자취를 추모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양만길 협회장도故이주섭 자문위원의 명복을 빌며, 올해와 내년 협회의 사업과 정책을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학술대회 주제는 「표준화 경향과 질 관리 신개념의 이해」로, 학회는 이 같은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특강과 구연발표를 마련했다. 참값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검사의 표준화와 외부정도관리 참여가 중요한 만큼, 올해부터 시행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차세대신빙도 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회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질 관리 시스템인 IQCP(Individualized Quality Control Plan)를 소개하는 특강을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수상자 명단〉

1. 학술장려상 : 원재희(세브란스병원)
2. 학술공로상 : 차경호(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 우수포스터상 : 강승희(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임상생리검사학회



임상생리검사학회(학회장 한형태)는 11월 5일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2016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한형태 학회장은 최근 들어 증가되고 있는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비롯하여 여러 생리기능 검사 분야에 대한 타 직종의 도전, 대학 내 청력학과 개설, 방사선사 직종의 초음파 전문자격제도 시행 등 생리기능 검사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임상병리사의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우리 업무 영역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회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를 공고히 하고 회원들에게 심

도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기존의 신경, 심장, 호흡기 3가지 섹션 외에도 수술 중 신경계 집중감시 세션을 추가하였다. 또한 부정맥, 이비인후과, 안과, 당뇨 검사 등 회원들의 다양한 근무 분야를 반영하여,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결의를 다졌다.

### 〈수상자 명단〉

1. 공로상
  - 김경환(이대목동병원) :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공로
  - 김은영(삼성서울병원) : 심초음파 초·중급 교육에 공로
2. 학술 연구 분야 우수회원
  - 권철석(서울아산병원) : 폐기능검사 분야
  - 김진희(성바오로병원) : 폐기능검사 분야

## 임상수혈검사학회



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김동찬)는 11월 19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2016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전등록 약 1,000명, 현장등록 약 70명으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등록하여 학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김동찬 학회장은 참석내 외빈과 발표자,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범열 고문은 “2011년 수혈검사학회로 독립되면서 주변으로부터 학회 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성대한 학술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의 학술에 대한 열정과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강사진을 섭외한 집행부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학회에서는 2개의 특강과 4편의 구연발표가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혈액형 검사에 대한 오해와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 등 최신 경향을, 4편의 구연발표에서는 수혈불응증 환자 사례, 세척혈소판제제, 비예기

향체 검출, 수혈부작용 및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 업무와 직결되는 주제가 선정되어 다채로운 발표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명단〉

1. 공로상 - 박현준 회원(서울아산병원)
  - 윤미숙 회원(서울대학교병원)
  - 김희범 회원(미르사이텍)
2. 학술장려상 - 서숙원 회원(서울아산병원)
3. 우수포스터상 - 김윤호(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채승원(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 정은주(서울아산병원)
4. 2016년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수석합격자 - 송경화(신촌세브란스병원)

## 임상검사정보학회



임상검사정보학회(학회장 최광모)는 11월 1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6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검사정보학회는 검사실 운영, 검사실 안전, 검사실 정보관리시스템, 검사실 관련 질향상 활동, 검사기기 관리 등의 검사정보서비스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최광모 학회장은 개회식에서 “2015년 2030년이 되면 임상병리사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 예측은 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으로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 등

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체외진단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뿐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진단검사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접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의는 (주)성혜메디텍 차경환 대표의 「진단검사의 역사와 그 가치를 찾아서」, (재)씨젠의료재단 강희용 회원의 「국민건강보험의 체계 및 검사 관련 법규의 이해」,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성 담당자의 「웨어러블 헬스케어 산업」, 한국로슈진단 채광조 담당자의 중소병원 검사실 레이아웃, 삼성서울병원 최소라 회원의 「Common Errors in ECG」, 인천시향병원 이희정 회원의 「검사실 인증 시 범하는 오류 예방」이 진행되었다.

활동보고서

(2016년 11월 1일 ~ 11월 30일)

- ▶ 지난 1일 협회는 시도회 및 분과학회 보수교육 정산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3일 양만길 협회장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6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 ▶ 지난 6일 협회는 2016년 결산 및 2017년 예산 편성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7일 중앙회 공보부 및 섭외부는 AAMLS 부스 및 광고 섭외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8일 학술발전위원회는 AAMLS 학술프로그램 마련 및 2017년 예산 편성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10일 협회는 제410차 상임이사회 및 집행부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11일 학생포럼위원회는 AAMLS 학생포럼(학부과정, 대학원과정) 운영 방식 및 주제 선정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12일 편집위원회는 대한임상검사와학회 각종 규정 개정 및 발행부수, 논문게재율 조정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15일 양만길 협회장 및 중앙회 집행부는 성현메디텍의 진단검사의학 역사전시관을 방문하여, 협회 회관 내 역사 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 ▶ 지난 16일 양만길 협회장은 그랜드엠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4차 임시이사회에 참석했다.
- ▶ 지난 17일 국시위원회는 오는 12월 24일 실시될 제44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관련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17일 보수교육위원회는 전자출결시스템 진행상황 점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23일 법제위원회는 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 및 검토를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24일 노경운 행정부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보건소 에이즈 실무자 전문교육에 참석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 ▶ 지난 26, 27일 양일간 감염관리위원회는 2017년 사업계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5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장님을 역임하신 **故이주섭** 자문위원님께서 2016년 11월 4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중앙회

협회, 2016 지방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워크숍 강의 지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양만길)는 지난 11월 3, 4일 양일간 공주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2016 지방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워크숍에서 「임상병리사의 미래지견, 「검진기관 평가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모인 약 34명의 지방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실장이 참석하였으며, 국시원 학술세미나로 인해 양만길 협회장을 대신하여 대전광역시 임상병리

사회 육근돌 회장이 2016년 협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석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아주대학교병원 최병호 회원은 2016년 검진기관 임상병리사 전문 교육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병상 수에 따른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 신설과 '검사실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협회의 정책적, 법적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다양한 직능별 협의회 운영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제66회 일본의학검사학회 일반연제(포스터) 모집 안내

1) 포스터 발표 신청 기한 : 2016년 12월 7일 수요일까지

2) 포스터 발표 신청 절차

- ① 협회 사무국 이메일 (kamt@daum.net)로 성명, 면허번호, 소속, 연락처, 연제(분야 및 분류 포함) 송부
- ② 협회 사무국에서 일본 학회 측으로 명단 및 연제 송부
- ③ 협회 사무국에서 포스터 작성 방법 및 템플릿 개별로 전달 예정

3)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 국제학회지원 프로그램

- ▶ 포스터발표자 협회지원사항 : 학회 참가 후, 참가 확인서 제출 → 30만원 국제학술지원금  
※지원금 혜택은 정회원에게만 적용되며, 회원 1인당 1회/ 3년 이후부터 재 신청 가능
- ▶ 문의사항 : 협회 사무국 02)3291-5435 / 메뉴 2번 혹은 사무국 이메일 kamt@daum.net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발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CHEMISTRY DxC 880I,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주)충일화학**  
CHOONG IL CHEMICAL, INC.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명예기자 김희성

ASCPi 14기(MB) 교육프로그램 종강식 실시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김건한)는 11월 11일 서울시회 강의실에서 ASCPi 14기(MB) 교육 프로그램 종강식을 가졌다. 김건한 회장,

한재일 학술부회장, 조경진 교수, 한윤숙 총무이사, 이승모 학술이사, 김희성 공보이사, ASCPi 강사진, 수강생 총 3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하여 총 15차례, 45시간 강의로 이루어졌다. 종강식 전에는 김은지 강사의 Genetics 강의가 마무리되었으며, 종강식에서는 김건한 회장의 격려사, 수료증 및 개근상 수상식 등이 진행되었다. 7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 ASCPi 교육 수료증이 수여되었고, 100% 출석한 수강생 15명에게 개근상을 전했다. 서울시회는 ASCPi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임상병리사상 공모 안내

1. 신청대상 : 서울시회 회원으로서 회원 권익 향상, 정책개발 기여, 사회봉사 등 임상병리사 위상에 기여한 자.
  2. 제출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자기소개서, 피추천자의 증명사진, 증빙자료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회 홈페이지 참조 (<http://seoul.kamt.or.kr> 정보자료실/일반자료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seoulkamt@hanmail.net](mailto:seoulkamt@hanmail.net))만 가능
  4. 접수마감 : 2016년 12월 9일(금)까지
  5. 시상일시 및 시상내역 : 2017년 1월 정기총회에서 상패 및 상금 150만원 시상
- ☎ 문의 :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02) 3291-5605~6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명예기자 이호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행사 진행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김영만)는 올해도 변함없이 대구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 지역 회원들과 11월 12일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저소득층 60가구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지원 및 사랑의 쌀 지원 사업을 펼쳤다. 대구시회는 남구청 주민생활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60세대에 쌀 10kg 1포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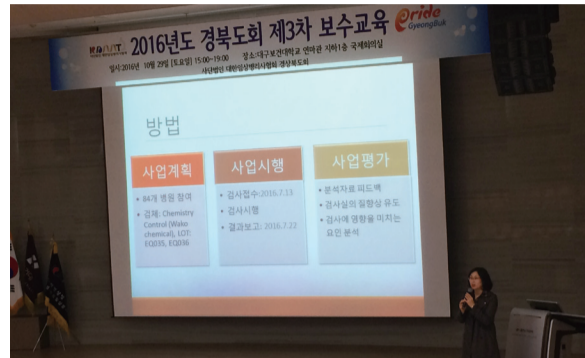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시각장애인 남구지회에 연탄 1,000장을 전달하였다. 대구시회의 이 같은 선행은 대구, 경북 지역방송인 TBC 뉴스에도 소개, 임상병리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집행부와 참여 회원들은 "임상병리사 회원 및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뜻 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명예기자 권익훈

3차 보수교육 실시 및 외부정도관리 지원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임대기)는 10월 29일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국제회의실에서 경북도회 제 3차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온라인 보수교육 인정 평점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사전등록 100명중 5명이 불참하였고, 당일 현장에서 4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총 99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임대기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수교육 전자출결관리 시스템과 협회창립 54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협회공식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보수교육 출결관리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해를 구했다.

이러진 보수교육에서는 2016년에 경북도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도관리 사업(위원장 김혜정 교수, 경운대학교 임상병리학과)의 시행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도관리 사업에 참가한 의료기관의 회원 연령대별 분포는 30, 40대가 70.3%에 달하였고, 66.7%의 병·의원에서는 외부 정도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정도관리 미시행 사유로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70.5%에 달하였다. 이에 도회에서는 수렴된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17년에는 검사 분야를 확대하고, 개인 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실정에 맞는 보수교육을 통해 이 자체 정도관리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명예기자 김영훈

추계 보수교육 및 뉴타이페이 학회 참가 지원 추천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기원진)는 11월 5일 광주기독병원에서 추계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씨젠의료재단 김미라 회원의 '요양급여 산출기준 및 인정기준', 용인세브란스병원 안병락 회원의 'Body fluids 검사의 질향상', 전남대학교병원 진유양 회원의 '수면다원검사의 이론과 실제', 대한결핵협



회 이진숙 회원의 '결핵균 검사-도말, 배양검사 중심'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광주시회는 대만 뉴타이페이와 MOU를 체결, 회원 한 명을 추천하여 내년 뉴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동아병원의 최여진 회원이 되었다. 기원진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뉴타이페이시와 MOU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회의 역량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

명예기자 김창수

**2016 충청북도의료기사연합회 한마음 등반대회 주관**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선중)는 11월 6일 2016 충청북도의료기사연합회(임상병리사회·방사선사회·치과기공사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한마음 등반대회를 주관했다. 등반대회는 청주에 위치한 미동산수목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약 120여명의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을 초청하여 단풍구경 및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 타 의료기사 직종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명예기자 홍준용

**제25회 산·학 공동 학술제 및 2016년도 2차 보수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신영숙 회장은)는 11월 12일 제주한라대학교 금호미래관에서 제25회 산·학 공동 학술제 및 2016년도 2차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영숙



회장은 개회식에서 한라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진에게 감사의 인사와 학생들이 준비한 학술제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산·학 공동 학술제가 학술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제주도회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 31명의 집행부 및 회원이 참여하였다. 이어진 학술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허예슬 회원의 「대중음식점 일회용 물티슈의 세균」, 제주대학교 오재호 회원의 「전정신경계 어지럼증」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제주한라대학교 학생들의 「온도와 습도가 요 시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지도교수 문인정), 「대형마트 카트 손잡이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지도교수 정무상), 「분변 칼프로텍틴과 비만」(지도교수 박신영) 발표 이후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회는 학술제 이후 협회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단합의 장을 마련,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2016년도 마지막 보수교육을 마쳤다.

**임상수혈검사학회**

명예기자 김윤호

**2016년도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 시행**



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김동찬)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실무위원회는 10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서부혈액원 강당에서 응시지원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이 치러졌다. 자격시험에는 대한임상병리학회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에서 장인호 위원장 및 차경호 위원이 참석하여 엄중하고 공정하게 시험 감독을 시행하였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75문항 150점, 단답형 주관식 15문항 60점, 서술형 주관식 5문항 40점으로 구성, 총 250점 만점에 175점(70%) 이상 득점한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자 23명 중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78.3%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수석합격의 영광은 총 250점 만점에 236점을 득한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송경화 회원이 차지하였다. 임상수혈검사학회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계학술대회장에서 자격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재)씨젠의료재단, 진주보건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재)씨젠의료재단과 진주보건대학교는 지난 11일 씨젠의료재단 본원에서 ‘우수한 전문 인력 육성과 상호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과 김창수 행정원장, 진주보건대학교 정종권 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천종기 이사장은 “재단과 진주보건대학은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씨젠의료재단은 작년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업무 수행능력, 근무자세, 발전 가능성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턴사원에게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2월 보수교육 계획서**

단체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교육장소	교육일자	교육과목	교육평점
중앙회	양만길	02-3291-5435	홈페이지 - 에듀센터	2016. 12. 15 까지	혈액학, 생리학, 임상화학, 조직세포 등	1~8점
서울시회	김건한	02-3291-5605~6	서울대병원 본원 A강당	2016. 12. 17	면역학, 특강	4평점
인천시회	김철민	032-890-2513	인천혈액원 강당	2016. 12. 03	중소병원 교육	4평점
대전시회	육근돌	010-3412-3669	대전	2016. 12. 08	화학, 공중보건	2평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기획연재

# 진정한 학술발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 발걸음



구본경

지난 2015년 편집위원회에서 명칭 중요성(단체, 자격, 학과, 학문, 세부전공분야, 세부자격, 직급제도, 논문, 초록, 학술상, 학회, 학술대회, 학술지, 학술 연구분야분류표, 학술범위, 업무범위, 전문자격증, 타직종 유관학회)에 대하여 병리협보 2015년 11월호부터 2016년 3월호까지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술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인호 ; 간사 이상희 ; 위원 제갈승주, 주세익, 김건한, 신경희, 박태화, 구본경)에서 협회 정관 제3조, 제4조, 제30조, 제33조 의거 동료, 후학들에게 현재보다 진일보된 지속가능형 학술정책과 학술자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매호에 학술, 편집, 연구동향에 대하여 연재하겠습니다.

## 1. 명심해야 할 사항

- 1) 학술대회 참가자 수, 그럴듯한 명칭 등은 결코 학술 수준을 올리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2) 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의료기사 직군에서 학술분야 발전 순위는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 > 임상병리사 > 치과기공사 순입니다.
- 3) 명칭, 학술역량, 학술범위,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국내외의 객관적 자료는 대한임상검사와학회 홈페이지 > 회원공간 > 자유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ID ; kamt, PW ; kamt).
- 4) 학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분과학회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5) 전문가로서 대내외적으로 평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술지나 학술 발표 자료를 규정과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6) 우리가 쓰는 논문초록은 미완성 논문으로서 정식 논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7) 논문 유형, 학술대회 초록투고지침에 있는 모든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2. 논문 유형

학술대회 발표자료		학술지	
학술활동실적		논문실적	
학술대회 초록 (Conference Abstract)	학술대회 논문 (= 학술대회 프로시딩즈) (Conference Proceeding)	프로시딩논문 (Proceeding Paper)	저널논문 (Journal Paper)
A4 1/2 ~ 2/3면	A4 2 ~ 4면	A4 4 ~ 8면	A4 10 ~ 20면

## 3. 초록 작성

- 1) 본문은 국문 1,500자(3,000 byte, 공백 포함, 최소 400자 이상) 이내로 작성한다.
  - ① 구글 >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글자수 점검
  - ② 소제목별 적절하게 글자수 배분해야 이상적

배경	방법	결과	결론
10~20%		60%	20~30%

- 3) 학술발전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자수를 하향할 예정(byte 수와 국문 자수는 대략적 수치임)

영문 150 단어	800 byte	국문 300~400 자	15 줄 이내
영문 200 단어	1,200 byte	국문 400~600 자	20 줄 이내
영문 250 단어	1,600 byte	국문 500~800 자	25 줄 이내
영문 300 단어	2,000 byte	국문 600~1,000 자	30 줄 이내

- 2) 제목은 국문 100자(200 byte, 공백 포함) 이내로 작성한다.
 

(예) 자동혈액응고검사용 Nanopia P-FDP 시약의 평가

(예) Evaluation of the Nanopia P-FDP Reagent Kit for Use in the STA-R EVOLUTION Automated Blood Coagulation Analyzer

▶ 작성자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구본경 편집간사 (삼성서울병원)

- 3) 저자는 성과 이름으로 표기하며, 영문 초록의 경우 이름과 성으로 표기한다.
 

(예) 김길동, 이길동, 박길동, 최길동

(예) Gilding Kim, Gil-ding Lee, Gil-Dong Park, Gil Dong Choi
- 4) 소속은 기관과 부서로 표기하며, 영문 초록의 경우 부서와 기관으로 표기한다.
 

(소속 예) ZCRL, ZCL, ZRL, ZMI, 00검사센터 (X)

(소속 예) 00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센터[과, 부] / 진단병리검사센터[과, 부] (0)

(소속 예) 의료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X)

(소속 예) 진단검사의학팀, 세포병리파트, 임상병리실, 뇌파검사실, 분자유전팀 (X)

(소속 예) 00대 임상병리학과 (X), 00대학교 임상병리과 (0), 00대학교 임상병리학과 (0)

(소속 예) 00대병원 (X), 00대학병원 (X), 00대학교병원 (0)

(소속 예) 00대 의대 병리과 (X), 00대 의대 병리학교실 (X), 00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0)

(소속 예) 00대학교병원 유전진단검사센터 / 종양진단검사센터 / 건강진단센터 / 임상의학연구소 / 의생명연구원 (0)

(소속 예) 00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핵의학과 / 내과 / 신경과 (0)

(소속 예) 00병원 감염관리실 / 원무팀 / 보험심사팀 / 자재구매팀 (0)

(소속 예)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0),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0)

(소속 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양법의학센터 (0)

(소속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보건소 의약과 (0)

(소속 예)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중앙혈액검사센터 경기혈액원 (0)

(예) 공동저자 중 소속이 다른 저자가 있으면 저자명 뒤와 소속명 앞에 위첨자, 어깨번호를 붙여서 표기  
000<sup>1</sup>, 000<sup>1</sup>, 000<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Jei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athology, Usu Hospital

(예)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특히 의사)

000<sup>1</sup>, 000<sup>1</sup>, 000<sup>2</sup>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sup>1</sup>Tongil Hospital, <sup>2</sup>Tongil University Medical School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sup>1</sup>Jangbaek Hospital, <sup>2</sup>Jangbae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athology, <sup>1</sup>Gando Hospital, <sup>2</sup>University of Gando College of Medicine

<sup>2</sup>Department of Pathology, University of Balhae College of Medicine and Goryeo Medical Center

<sup>2</sup>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Baekdu National University

- 5) 초록은 원저, 증례로 구분한다.

국문 원저	제목, 저자, 소속-배경-방법-결과-결론 (서론 X, 재료 및 방법 X, 고찰 X)
국문 증례	제목, 저자, 소속 - 배경 - 증례 - 결론
영문 원저	Title, Author, Affiliation-Background-Methods-Results-Conclusion (단수, 복수 주의)
영문 증례	Title, Author, Affiliation - Background - Case - Conclusion

- 6) 증례는 원칙적으로 사례 수, 추가적 연구, 전향적 연구, 환자 동의 등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저 형식으로 작성한다.

## 4. 향후 학술발전 방향

- 1) 학술발전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12일 개명한 분과학회 국영문 명칭으로 2018년 학술대회 초록집(또는 KCI 등재학술지인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별책 1호[종합], 2호[추계])를 정부기관에 납본 계획하고 있습니다.
- 2) 현재 사용 중인 학술대회 초록 예시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ls.or.kr>) 내 회원공간 참고
- 3) 2017년 검토(초록 현행 유지 vs 초록과 병행 vs 변경) 중인 학술대회 프로시딩 예시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ls.or.kr>) 내 회원공간 참고
- 4) 학술발전위원회에서는 학술대회 초록집 형식, 분과학회 홈페이지 학술자료 운영 등을 매년 평가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결과 발표



김창휘 원장과 이야기하는 양만길 협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개원 24주년을 맞아 11월 2, 3일 양일간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보건의료인 배출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자격인증을 위한 평가, 인증 후 관리 시스템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제도, 자격인증평가, 면허 후 관리 시스템은 각각 다른 관리 주체와 정책논리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국시원에서는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15개 보건의료인 직종을 대상으로 현재 제도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정책과제를 마련, 공고했다.

임상병리사 직종 연구는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제갈승주 교수 연구팀이 선정되었다. 제갈승주 교수는 국시원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 국시위원장과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조직세포교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제갈승주 교수 연구팀은 양만길 협회장과 이상희, 김대중, 주세익, 박종오, 강지혁, 권필승, 김원식, 김은중, 김홍성, 이선경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 재정립, 바람직한 임상병리사의 역량 정립, 임상병리사 인력 양성 및 배출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찰, 임상병리사 인력양성 및 배출을 위한 개선(안) 도출,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은 우선, ‘우수한 임상병리사’를 ‘대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기술에 적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임상병리사’라고 정의 내렸다. 이후 임상병리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을 설명하며, 분자진단학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춤의학, 예방의학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진단의 조력자에서 진단의 동반자로서 임상병리사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제갈승주 교수는 지난 2015년까지 실시된 면허신고제 결과를 토대로 임상병리사의 78%가 여성이며, 64%가 20대~30대로 연령층이 젊고, 약 75%가 정규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생리기능검사실, 병리과, 핵의학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2013년과 2016년의 주요 5대 병원 내 임상병리사 부서 분포에 주목하기를 요청했다. 진단검사의학과에 가장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소속되어 있지



참석자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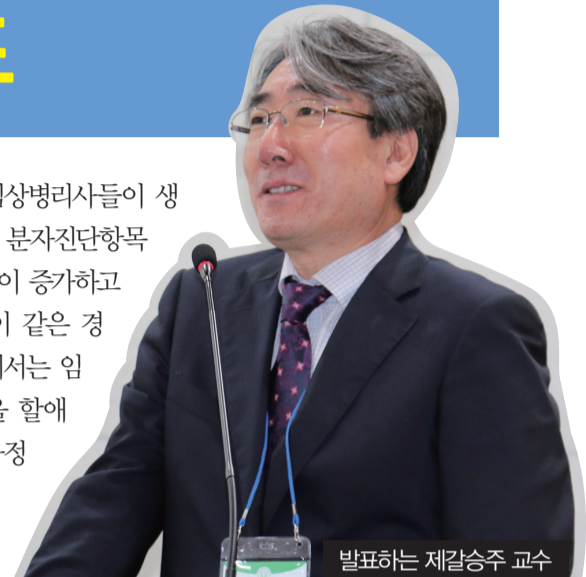
만, 이에 못지않게 상당수의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생리기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분자진단항목의 수요 증가로 해당 업무 종사 인력이 증가하고 있었다. 다행히 교육기관들에서는 이 같은 경향을 파악, 3년제 교과과정의 학교에서는 임상생리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하고 있었고, 4년제 교과과정에서는 의생명과학 분야의 심화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커리큘럼과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은 시대의 요구에 뒤쳐져 있었다.

연구팀은 교과과정의 질 관리, 대학 실습 교육의 개선을 요청하며 각 기관별 과제를 제안했다. 최근 국가시험에서 단순 암기형 문항이 줄어들고 있지만, 업무자동화와 함께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직무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임상생리학, 분자진단, 실험실 안전, 결과평가, 정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응용형(분석형)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임상병리사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에 따른 생명윤리 과목을 보강하고 실습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쓰고, 진출 분야 다변화를 반영한 융합 지식에 대한 교육, 학문 단위가 아닌 통합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과정 편성으로 학생들의 응용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회가 임상병리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교육전반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 같은 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설득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제갈승주 교수는 “협회가 정책적으로 교수 자격 조건 및 교육 여건, 표준 교육과정, 학교 및 실험과 실습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교육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며 “임상병리교육평가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임상병리사의 역량 유지 및 질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임상병리사제도 및 운영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했다.

양만길 협회장은 “이번 정책과제는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학교 교육, 국가시험, 보수교육 및 면허관리가 유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관련된 모든 주체가 협업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제안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임상병리사의 역량 강화와 업무 범위 재확립을 이끌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발표하는 제갈승주 교수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김중환 교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동정

▶ 권정아 회원(소속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권정아 회원이 11월 7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암 검진사업의 주도적 역할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정아 회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로 환경에 맞춰 질병을 예방하고 다양한 건강 증진활동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김인식 회원(소속 을지대학교), 대한의생명과학회 감사패 수상



김인식 회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대한의생명과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학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글쓰기에 빠지다

회원 참여코너

병리협보에서는 임상병리사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작은 백일장을 실시합니다. 주제에 관련된 사연 혹은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수필, 소설, 시, 만화, 그림, 사진 등)으로 표현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A4용지 1/2면~1면 입니다.

[제22회 글쓰기에 빠지다 모집공고]

- 1)주제 : 2016년을 마무리하며      2)접수기한 : ~ 2016년 12월 21일까지 도착
- 3)접수방법 - 원고와 함께 성명(필명), 면허번호, 연락처, 상품을 받으실 주소지(우편번호) 기입하여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접수
  -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
  - 우편접수 (서울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 (우)02811 / 병리협보 담당자 앞)
- 4)기타 - 원고가 채택되신 분의 원고 중 일부는 다음 호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5명 예정)
  - 필명(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원고 접수 시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품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초상권은 출품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출품작은 삭제되지 않으며 병리협보 PDF 및 인쇄본을 통해 공개상태로 보관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21회 당선작

(주제 : 영화)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영화, The Intern!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송 문 호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 시니어 인턴, 임금 상한제 등이 이슈화 되어서인지 영화 예고편이 귀에 쏙 들어와 보게 되었는데, 보고나니 참 마음 따뜻해지는 여성을 위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하는 워킹맘으로서의 제 일상과도 오버랩 되어, 잔잔하게 영화를 보는 내내 나의 이야기 인 것만 같아 간혹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영화는 "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라~", "경험은 결코 늙지 않아요,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죠~!" 라는 대사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업 한 지 1년 반 만에, 직원 2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20명의 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젊은 CEO 줄스(앤 해서웨이), TPO에 맞는 패션센스,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도 끊임 없는 체력관리, 야근하는 직원까지 성심껏 챙겨주는 열정적인 그녀. 한편 70세의 나이지만, 경험 많고 고스펙을 자랑하는 만능 시니어 인턴사원 벤(로버트 드 니로). 저 또한 일선에서의 퇴직을 조금씩 생각해야 되는 나이다 보니, 영화 전반의 벤이 퇴직한 후 생활모습이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았습니다. 전화번호부 인쇄회사 전직 부사장까지 했던 벤은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시 사회 진출의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벤은 (할아버지가 귀여운 손녀 바라보듯) 모든 불평불만을 다 들어 줄 것 같은 꽃미소를 머금고, 하찮은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젊은 CEO의 진취성, 자신감, 사랑, 건강을 챙겨주고 노년기 본인의 사랑도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이끌어가는 멋진 사람입니다. 영화 중간 중간 상황에 맞는 멘토링

을 보여주며,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벤이 참 매력 있고 멋집니다. 줄스는 고객을 위해 박스포장까지도 직접 하는 열정적인 30세의 까다로운 CEO입니다. 남편과 서로의 역할을 바꿔, 가사와 육아를 남편에게 맡기고 일 중독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끼고 살며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여성 가장입니다. 때문에 항상 남편에 미안하고 아이에게 미안해하는 그녀. 퇴근 후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며 줄스가 하던 말 "생각만으로도 행복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동화같은 집! 난 그 집을 참 사랑한다~"라는 말속에 가정과 사랑을 아름답게 지키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면서 약간의 복선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령화 사회의 현실과 일의 소중함, 민첩한 젊은이와 느리지만 지혜로운 시니어가 어떻게 조화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보여주려 노력한 낸시 마이애스 감독의 이 영화에, 따뜻한 공감과 가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보낸 감동의 메모 한 줄

대구 파티마병원 노 건 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인연이 시작 되었다. 몇 발자국 걷기만 해도 숨이 턱 및 까지 차올라 힘들어 하는 한 환자가 호흡기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청도에서 대구 파티마 병원을 찾았다. 숨이 너무 차서 검사를 하기도 힘들 정도 인데 환자분의 의지가 강해서 30여분을 거쳐 검사를 마치고 나보다도 선생님이 더 고생하셨다면서 너무 감사하며 본인이 농사지는 청도감을 보내주신다고 계속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다. 정말 괜찮다고 계속 사양을 했지만 숨이 차서 말씀하시기도 힘든 환자분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서 결국 검사실 주소를 알려 주었다. 얼마 후 검사실로 한 상자에 포장된 청도

반시가 택배로 도착을 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검사실 사람들이 빵 터져버렸다. 내 이름이 아닌 노과장이란 이름이었다. 환자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택배 속의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노과장님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다.” 라는 한 줄의 메모가 내겐 더 없는 감동이었다. 검사를 하면서 웃고 울고 하는 일이 꽤 많지만 한 줄의 메모가 이런 큰 감동이 될 줄은 몰랐다. 이 후에도 몇 해 동안 매년 진료를 받으시러 병원을 방문 하실 때 마다 일부러 감을 가져다 주셨는데 언젠가부터 병원 방문이 없으셨다. 내 인생에 있어, 그분의 짧은 한 줄의 메모는 언제라도 초심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작은 부적 같은 것이 되었다.

# 영화 같은 나의 이야기, 병리협보의 제1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탁구대회 공고를 본 뒤 달라진 나의 삶

김해 한가죽 요양병원 양 수 미

몇 달 전, 협보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다. 임상병리사 탁구대회를 한다는 것이다. 탁구라 하면 어릴 때부터 즐겨 치고, 대학교 때도 과 대표로 나가서 학교 전체 여자 개인전 우승까지 한 나에겐 너무나 아련한 추억의 한 페이지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탁구를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벽찬 일인가? 그러나 나 홀로 참가할 수 없기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난 김해에 사는데... 아직 손이 가는 아이들 엄마인데... 어떻게 참가하지?’, ‘참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가하지?’를 여러번 되뇌면서 계속 읽고 또 읽었다... 결국 밀려드는 업무에 협보를 접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도 그렇게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협보가 와서 보는데 또 탁구에 대한 내용이 짧게 있었다. 김해 임상병리사 모임이라도 열고 이 탁구 대회 출전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회원들이 많이 모임까?’, ‘아이들을 나두고 저녁시간에 어떻게 연습을 하려 갈수 있을까?’ 등 탁구를 치고 싶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김해 생활 체육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거다 싶어 무작정 개인전 참가신청 전화를 하고, 병원 근처 탁구장에 레슨을 신

청해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다니기 시작했다. 어릴 때 배운 실력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너무 부족했다. 강사님의 특훈 덕분에 실력이 부쩍 올랐다. 강사님은 김해 탁구협회 시합까지 나가자고 제안해왔다. 가슴이 또 뛰었다. ‘그래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상병리사를 퇴직하면 탁구장을 차려서 레슨까지 해야겠다는 미래계획도 갖게 되었다. 탁구로 인해 내 일상과 인생이 달라지는 기분이었다. 너무 신이 났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김해 생활 체육대회’는 우리 동네에 탁구 출전 선수가 없어서 개인전 자체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김해 탁구 협회 대회’는 내 실력보다 등급이 높게 나와 연습을 더 많이 해야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두 대회 출전은 못하게 되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정으로 탁구를 마음껏 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11월 병리협보를 받았다. “와~ 대박” 이렇게 성대하게 탁구대회가 열렸을 줄이야 상상을 못했다. ‘열기가 대단했겠다’는 생각과 ‘나도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작은 후회를 하면서 이 글을 쓴다. 하지만 탁구를 잊고 있던 내가 병리협보를 보고 다시 탁구를 시작했다. 나의 꿈, 삶의 의욕, 시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심시간마다 탁구를 치러 간다는 사실에 아침 출근길이 너무 너무 행복하다. 감사해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전자차트

## EMR의 동반자 CNS Viewer 출시!



**주요기능**

- 실시간 심전도 이미지 변환
- MultiViewer 기능
- Image 비교 기능
- 다양한 이미지 Format (JPG, TIFF, PNG, BMP, PDF)

**지원모델**

NIHON KOHDEN, EGG Series  
G, E Medical, Philips \*개발중

**진단사업**

- 검사실 Turnkey 구성 지원
- Major Brand ( ROCHE, ABBOTT, BECKMAN COULTER) 와 전문대리점 계약체결로 자동화 검사에 관한 장비/시약공급
- 기타 80여 개의 협력사와의 MOU체결로 진단 노화학, 세포, 조직, 검사소모품에 대한공급

**전산사업**

- 장비 Interface
- CDIS
- LIS Consulting
- 정도관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94번길 68 (호계동, 양우내안애플리스) 상가 201호  
• TEL : (02) 785 - 2389 • FAX : (02) 785 - 2391  
• 담당자 : 010 - 4706 - 8028 채 송아



QUALITY  
KEEP YOUR HEALTH  
KEEP YOUR HAPPINESS  
PRODUCT  
MARKET

(재)씨젠의료재단은

**최고의 검사품질로**  
**건강과 행복**을 지킵니다.



One-day 검사란?

국내 자동화 된 분자진단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체수거부터 결과보고까지 24시간 안에 완료되는 씨젠의료재단만의 특화된 분자진단검사 시스템을 말합니다.

검사의뢰 및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ical.com